

다문화가정 자녀교육과 기독교적 다문화교육

강영택 (우석대학교 교육학과)

1. 서론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선지 2년이 지났다.¹⁾ 이제 우리사회는 다인종,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을 그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한민국은 순수혈통을 중시하는 단일민족 국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다른 인종, 다른 피부, 다른 언어, 다른 문화를 지닌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무척 어려운 나라이다. 결혼을 통해서건, 일터를 찾아서건 타국에서 건너온 많은 이주민들이 우리사회에서 신소외계층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그 이주민들이 낳은 자녀들은 많은 경우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주위 사람들의 편견과 차별 가운데 더욱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성경은 사회의 소외된 이웃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촉구한다. 특히 구약성경은 오늘날의 외국인 이주민에 해당하는 ‘나그네’에 대한 관심을 많은 곳에서 나타내고 있다.²⁾ 성경은 성도들에게 이주민들을 보살필 책임을 묻는다. 성도로서 우리의 이웃이 된 그들을 어떻게 포용하며 사랑을 나눌지 그 방법은 어떻게 되어야 할지 고민할 때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교교육의 실태를 분석하고 그들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다문화교육의 본질과 방향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를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문제를 갖는다.

첫째,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교교육의 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다문화교육은 무엇인가?

셋째,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다문화교육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는 무엇인가?

이 연구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먼저, 연구자는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정부부처의 통계자료들과 직접 다문화가정의 실태를 조사한 질적·양적 연구문헌들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교교육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다문화교육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과 실제 우리나라에서

1) 법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2007년 8월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가 100만 명을 넘었다고 한다. 이는 10년 전인 1997년에 38만 명이었던 것에 비교한다면 급격한 성장이라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2008)의 통계자료는 2008년 5월 현재 우리나라에 90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 주민이 891,341명으로, 이 중에는 외국인 근로자 437,727명 (49%), 국제결혼 이주자 102,713명 (11%), 국제결혼가정 자녀 58,007명 (7%), 유학생 56,279명 (6%), 혼인귀화자 41,672명 (5%) 등으로 구성된다고 한다.

2) 나그네 (히브리어 ‘게르’) 라는 단어는 구약성경에 명사형으로 92번, 동사형으로 41번, 유사명사로 11번 사용된다. 나그네의 의미는 기근, 전쟁 등으로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살게 된 장기 체류 이주 노동자를 가리킨다 (김의원, 2008).

시행되고 있는 다문화교육을 고찰함으로써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해 다문화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교육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를 정립하기 위하여 다문화교육과 관련된 성경적 개념들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범주를 주요 선행 연구들(윤희원 외, 2006; 이재분 외, 2008; 조영달 외, 2006)의 선례에 따라 국제결혼가정 자녀, 외국인근로자 가정 자녀, 새터민 가정 자녀의 세 분류에 한정하였다. 우리나라의 중요한 외국인 이주민 중 하나인 화교는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고, 외국인 근로자 가정 자녀 가운데서도 본국에서 태어나 국내에 이주한 자녀와 국내에서 태어난 자녀는 매우 다른 상황임에도 편의상 같은 분류에 포함시켰다.

2.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교육 실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초·중·고 학령기 자녀들의 수는 39,000명가량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³⁾ 이들 중 많은 아이들이 일반 아동들이 갖는 교육적 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면에서 비슷한 처지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다문화가정 자녀들 가운데서도 그들의 배경에 따라 서로 조금씩 다른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된다. 한 연구에 따르면, 국제결혼 가정 자녀를 “뒤처지는 아이들,” 외국인 근로자 가정 자녀를 “방치되는 아이들,” 새터민 가정 자녀를 “탈락하는 아이들”로 부르면서 그들이 겪는 고충의 성격을 구분하고 있다. (조영달 외, 2006). 그들이 처해있는 교육적 실태와 경험하는 어려움을 국제결혼 가정 자녀, 외국인근로자 가정 자녀, 새터민 가정 자녀로 나누어 고찰하도록 하겠다.

1) 국제결혼 가정 자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들 중에서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은 18,769명으로 초등학교에 84.2%인 15,804명, 중학교에 11.7%인 2,205명, 고등학교에 4%인 760명이 재학 중에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2008). 부모의 국적은 일본 (41.0%), 중국(22.3%), 필리핀(14.3%)순이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학생수의 증감은 <표1>에 나타난 바와 같다.

조영달 외(2006)의 연구에 의하면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들은 언어능력의 부족으로 학습부진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일상생활에서의 의사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독해, 작문, 어휘력 등에서 다른 아이들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한다. 또한 이들은 성장과정에서 정체성 혼란을 겪기도 하고, 집단 따

3) 이 수치는 교육과학기술부 자료에 나와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교 재학생 수에다 중도 탈락률을 고려하여 본 연구자가 계산한 숫자임. 행정안전부의 통계에 따르면 국제결혼 가정자녀 수는 총 58,007명이며, 만6세까지의 아동이 33,140명이고,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연령의 자녀수는 18,691명, 중고등학생에 해당하는 연령의 자녀수는 6,176명이다 (행정안전부, 2008). 행정안전부의 통계에는 외국에서 태어나 부모를 따라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근로자 자녀나 새터민 자녀 등은 빠져있어 숫자의 차이가 있다.

<표1>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재학 현황 (2008년 6월 기준)

구분	초		중		고		계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2005	5,332		583		206		6,121	
2006	6,795	27.4	924	58.5	279	35.4	7,998	30.6
2007	11,444	68.4	1,588	71.9	413	48.0	13,445	68.1
2008	15,804	38.1	2,205	38.9	760	84.0	18,769	39.6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2008

돌림으로 정신적 충격을 겪는다고 한다. 그래서 국제결혼 가정의 아이들은 10명 중 1명 정도가 초등학교에 미진학 하거나 중도 탈락을 하고, 10명 중 2명 정도가 중학교에 미진학 하거나 중도 탈락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오성배, 2006; 조영달 외, 2006). 이는 일반 학생들의 중학교 미진학 및 중도 탈락률 1.1%에 비한다면 대단히 높은 수치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중도탈락률이 높은 이유는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보다는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오성배, 2006). 취학전 가정에서의 언어교육의 어려움으로 자녀들의 언어발달이 늦고 이로 인한 학업부진과 다른 학생들로 부터의 따돌림 등으로 인해 소외감과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오성배, 2006). 설동훈(2005)의 연구에 따르면 조사대상 국제결혼 가정 아동의 17.6%가 집단 따돌림의 경험을 하였다고 답하고 있다.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이유는 ‘엄마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34.1%)’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의사소통이 잘 안되어서 (20.7%),’ ‘특별한 이유 없이 (15.9%),’ ‘태도와 행동이 달라서 (13.4%)’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도네시아인 엄마를 둔 한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서덕희(2008)의 질적 연구는 국제결혼 가정 자녀가 학교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의 복잡한 과정을 생생하게 보고하고 있다. 그 학생의 학교 담임교사는 한글이 전혀 서투르지 않은 4학년 남학생의 외톨이 생활을 다소 뚱뚱하고 내성적인 성격의 개인적인 특성 탓으로 보고 있었다. 그러나 연구자는 그 학생이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개인적인 특성 뿐 아니라 엄마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회현상의 결과라고 보고 있다. 즉, 외국인 며느리를 싫어하는 할머니의 영향으로 엄마와 자연스러운 관계를 맺지 못했고, 외국인을 배타시키는 주위사람들의 영향으로 엄마가 인도네시아인이라는 사실을 밝히기를 꺼려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체성의 혼란과 학교 1, 2학년 때의 따돌림의 경험이 4학년인 지금도 그에게 자신감을 잃게 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국제결혼 가정의 구성원들은 정부에서 그들을 위해 시급히 해주기를 원하는 사항

으로 ‘경제적 지원’ (19.9%)이나 ‘사회적응을 위한 한글· 문화 교육서비스’ (25.7%)보다 ‘국제결혼 가정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사회분위기 조성’ (30.6%)을 더욱 중요하게 꼽았다 (설동훈, 2006). 이는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를 ‘우리가 아닌 존재’ 즉 ‘타자’로 인식하여 그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 및 고정관념을 가지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설동훈(2006)의 연구에 따르면 국제결혼 당사자 중 96%가 자신의 자녀는 한국국민이면서 한국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일반국민들 가운데는 30% 정도만이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를 한국인이면서 한민족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외국인 근로자 가정 자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들 가운데 취학연령기인 7세 이상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2005년 기준으로 17,287명이다. 이중 외국인 학교에 재학 중인 7,800명을 제외한 9,5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우리나라 학교에 다니고 있어야 하지만 실제 학교재학생은 1,574명에 불과하다 (조영달 외, 2006). 그나마 학생 수가 감소하여 2008년 기준으로는 1,402명만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2003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불법체류 근로자의 자녀들도 학교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2005년 기준으로 148명의 학생들이 학교에 재학 중이다.⁴⁾ 이처럼 많은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은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35%),’ ‘한국말을 잘 못해서(20%),’ ‘불법체류자의 자녀이기 때문에(15%)’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에 다니고 있는 이들 자녀들은 언어능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한 학업부진의 고충을 호소한다. 따돌림이나 친구 사귀기의 어려움 뿐 아니라 많은 아이들이 나이에 비해 2~3년을 낮추어 학년에 들어감으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한다 (조영달 외, 2006). <표2>는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재학현황을 도표로 나타낸 것이다. 2006년과 2007년에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재학생 수가 감소한 것은 정부의 불법체류 근로자의 단속 및 출국 정책 영향과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자녀들이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3>은 자녀들의 국적별 분포를 나타낸 도표이다.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태에 놓여있다. 부모가 모두 일터에 나가서 늦게 돌아오기 때문에 이들은 방과 후에는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학교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데는 학교와 학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점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한건수, 2008). 초등학교의 경우 준비물을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은 위축되며 수업 진행에도 어려움을 겪으며, 문

4) 만 7~12세인 외국인 불법 체류자의 자녀는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정식으로 공부를 할 수 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는 청강생의 신분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되어있다 (조영달 외, 2006).

<표2> 외국인근로자 자녀의 재학현황 (2008년 6월 기준)

구분	초		중		고		계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2004	615		207		99		921	
2005	995	61.8	352	70.0	227	129.3	1,574	70.9
2006	1,115	12.0	215	△39.0	61	△73.1	1,391	△11.6
2007	755	△32.3	391	81.9	63	3.3	1,209	△13.0
2008	981	29.9	314	△19.7	107	69.8	1,402	15.9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2008

<표3> 초중고 재학 외국인 근로자 자녀 국적별 분포 (2007년 4월 기준)

합계	몽골	일본	중국	필리핀	남부 아시아	미국	중아아 시아	베트남	러시아	인도네시아	기타
1,402	368	308	284	111	43	40	39	30	34	8	137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2008

제가 발생해도 부모가 학교에 올 수 없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은 주로 모국 출신 아이들과 가까이 지내고 한국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유는 많은 아이들이 단칸방이나 지하실 방에서 대여섯 명이 함께 살기 때문에 자신의 집을 공개하기를 꺼려하고, 생활 수준의 차이로 위축되어 교우관계에서 소극적으로 처신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건수, 2008).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에게는 현재 학교나 가정에서 겪는 어려움 뿐 아니라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큰 고통을 겪기도 한다. 미숙련 이주 노동자의 정착을 허용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결국 그들은 그들의 고국으로 귀환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미 상당 부분 한국사회와 문화에 동화되어 한국을 떠나기 싫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래서 잘못하면 그들은 한국에서도, 그들의 고국에서도 정착하지 못하는 문화적 난민이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3) 새터민 가정 자녀

새터민 자녀들 가운데 학령기 연령에 해당하는 아이들의 수는 2006년 기준으로 997명인데 이들 중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수는 49.5%인 494명에 불과하다. 특

히 고등학교 취학률은 6.6%로 대단히 낮은 수치이다. 학교에 다니는 새터민 가정 자녀의 심각한 문제는 중도 탈락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전체적으로 7.6% 학생들이 중도탈락을 하고 있고, 중학생의 경우는 16.2%, 고등학생의 경우는 14.5%의 학생들이 중도탈락을 하여 일반 중학생 1.1%~1.9%, 일반 인문계고등학생 1.1%~1.7%, 전문계고등학생 4.0~6.1% (2004년 기준)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로 학교를 그만 두고 있는 셈이다. 새터민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김미숙(2004)의 연구에 의하면, 다수의 학생들(73.9%)이 성적 부진을 가장 큰 고민으로 갖고 있다고 했으며, 초등학생의 20.6%는 북한 사투리로 인해 고충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를 중도에 그만두고 싶은 이유로 성적 부진과 어려운 수업과 같은 학습요인과 친구들의 무시와 놀림, 친구 부재 등과 같은 교우관계를 중요하게 꼽았다. <표4>는 새터민 가정 자녀의 재학 현황을, <표5>는 새터민 자녀의 취학 현황을, <표6>는 새터민 자녀의 1999년에서 2004년까지의 입학생 대비 중도탈락 현황을 나타낸 도표이다.

<표4> 새터민 자녀의 재학 현황 (2006년 기준)

구분	초		중		고		평생시설		계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2004	191		82		27		3		303	
2005	247	29.3	131	59.8	43	59.3	11	266.7	432	42.6
2006	248	0.4	166	26.7	60	39.5	20	81.8	494	14.4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2006

<표5> 새터민 자녀 취학 현황 (2004년 기준)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계
취학대상자	223	167	411		801
재학생	191	82	27	3	303
취학률 (%)	85.7	49.1	6.6		37.8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2004

<표6> 새터민 자녀 6년간 입학생 대비 중도탈락 현황 (1999~2004)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계
입학생	283	136	76	6	501
중도탈락률(%)	3(1.1)	22(16.2)	11(14.5)	2(33.3)	38(7.6)
졸업생	86	31	35	2	154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2004

최근 들어 일반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새터민 가정 자녀들을 위한 대안학교들이 생겨나서 그들을 위한 새로운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학교들이 새터민 학생들의 학교와 사회의 적응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대부분 미인가로 존재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다.⁵⁾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의 실태를 조사한 많은 연구들이 지적하는 바는 다문화가정 자녀라는 이름으로 일반화하기에는 그들의 배경에 따라 특성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설부른 단순화보다는 그들의 특수성에 맞는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한다 (조혜영 외, 2007; 이재분 외, 2008). 즉 국제결혼가정 자녀들 가운데는 다문화가정 자녀라는 특별한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원치 않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 가운데는 신분의 불안으로 학교생활 자체가 힘든 아이들이 있고, 많은 새터민 자녀들은 학업성적의 부진을 힘들어한다. 이처럼 배경에 따라 당면하는 어려움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 오히려 ‘구분짓기’의 기제로 작용하여 학생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경우도 생긴다 (조혜영 외, 2007).

이는 아직 우리나라의 학교에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위한 지원체제의 정비가 부족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먼저 학생지도에서 가장 중요한 교사들의 다문화이해 정도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많은 교사들은 타문화에 대한 인정의 필요성을 알고는 있지만 타문화권 아동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다문화교육을 어떻게 실시하는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이에 대한 연수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재분 외, 2008). 그리고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생활지도 및 상담 방법, 다문화 교육과정, 다문화 학생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 등이 거의 준비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가정적 어려움, 사회적 편견, 학교체제의 미비 등으로 교육적 기회배분에서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교교육에의 접근이나 교육적 경험에서의 배분의 격차는 교육적 성취의 차이로 나타난다. 이는 결국 학력의 격차로 이어져 장차 사회 경제적 지위의 차이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이들은 새로운 소외계층을 형성하게 되어 우리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심화시키고 또한 인종 문제라는 새로운 사회불안 요소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 (오성배, 2006). 그러므로 다문화 가정의 자녀교육의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이기 보다는 우리사회 전체의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책을 강구해야만 한다.

3. 다문화가정 자녀교육과 다문화교육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그 배경에 따라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동일하게 학교교육

5) 2006년 한겨레중고등학교가 안성에서 특성화학교로 정부의 인가받아 개교를 하였다.

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업성적의 부진, 언어적 문제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교우관계, 경제적 문제, 신분의 불안 등의 다양한 고충에 직면해있지만 그 어려움의 근원에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자리 잡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6년 사회통계 조사결과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을 위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사항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사회분위기 조성'이 가장 많이 나왔다고 한다 (양영자, 2007). 국가인권위의 혼혈인 인권실태조사에서도 '학교에서의 차별과 따돌림'과 '고용에서의 차별'을 그들이 겪는 가장 심각한 어려움이라고 답했다 (양영자, 2007). 이러한 지적은 100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사회가 아직 다문화사회로의 전이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문화사회에서는 타문화를 자신의 문화와 동등하게 존중하며, 소수집단의 구성원들이 그들의 문화적, 인종적 특성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게 되는 것을 추구한다. 이러한 다문화사회의 형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과 문화의 이해와 조화를 추구하는 다문화교육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학교교육에서 어려움을 겪는 데는 우리사회에 다문화교육이 부재하거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다문화교육은 한 사회 안에 다양성이 존재함을 알고 상호차이를 인정하며 문화집단 간의 상호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소통을 돕는 교육이라 이해될 수 있다 (한준상, 2008). 이재분 외(2008)는 다문화교육의 구성개념으로 주류사회의 인종적 편견을 벗어나게 하는 반편견 관용교육, 주류언어나 문화를 통한 일방적 동화주의가 아닌 문화적 다양성의 교육, 다원적 세계시민 정신을 구현하는 교육, 다차원적 정체성 교육, 사회정의 실현과 인권교육 등이 있다고 하였다. 다문화교육의 대표적인 학자인뱅크스(Banks)는 다문화교육의 목적을 다섯 가지로 말했다 (Banks, 2008: 2-7). 첫째, 다문화교육은 학생들에게 다른 문화의 관점을 통해 자신의 문화를 보게 하여 자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 둘째, 다문화교육은 학생들에게 서구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 문화적, 민족적, 언어적 대안들을 가르친다. 셋째, 다문화교육은 모든 학생이 자문화, 주류문화, 타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사회에서 요구하는 지식, 기능, 태도를 습득하도록 한다. 넷째, 다문화교육은 소수집단이 그들의 인종적, 신체적, 문화적 특성 때문에 겪는 고통과 차별을 감소시키도록 한다. 다섯째, 다문화교육은 학생들이 글로벌 세계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과 수리적 능력을 습득하도록 돕는다.

이처럼 다문화교육은 소수자의 사회적응의 문제를 넘어 보다 관용적이고 정의로운 삶과 사회 형성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다문화교육에 대한 논의와 실천은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다문화교육은 매우 협소하게 이해되고 있고, 더구나 실천의 문제에서는 더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다문화교육은 대개 소수자의 적응교육, 소수자의 정체성 함양교육, 다수자 대상의 소수자 이해 증진 교육 등으로 규정되는데 그 중에서 실제 실시되는 교육활동은 소수자의 적응을 돕는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양영자,

2007). 그리고 교육의 주체 면에서 우리나라의 다문화교육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부 등과 같은 정부부처 주도적 성격이 강하다. 그러다 보니 교육활동이 서로 중첩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수혜자 위주가 아닌 공급자 중심의 다문화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조혜영 외, 2007; 한준상, 2008).

교육과학부의 경우 2006년 이후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계획'을 세워 다문화 가정 자녀교육을 체계적으로 돕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2008년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계획'에 따르면 다문화교육 지원정책의 비전을 '다원주의 가치·개성·창의 존중 인재 육성'으로 삼았다. 그리고 그 비전을 위한 목표로 다음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격차 해소 및 사회통합, 둘째, 일반학생의 다문화 감수성 및 이해 제고, 셋째, 다문화가정 학생을 글로벌 인재로 육성 등이다 (교육과학부, 2008). 교육과학부가 제시한 비전과 목표는 어느 정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수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목표를 수행하는 실천과제들이다. 지금까지 교육과학부에서 추진한 정책 사업은 중앙정부 (교육부) 차원에서 다문화교육 정책연구와 한국어교재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했고,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지역 다문화교육센터를 지정하여 지역에 맞는 다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며 학생, 교사, 학부모 의 다문화교육을 지원하고, 단위 학교 차원에서는 연구 시범학교 운영과 한국어반, 방과후 학교, 문화체험학교,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업들 가운데 많은 부분이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한국어 교육과 학습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이와 함께 한국문화 이해와 학생들의 자아정체성 형성을 위한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물론 이러한 사업들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한국의 사회와 학교에 적응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일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다문화교육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한국문화에 적응 혹은 동화되는 것을 돕는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한국사회에의 적응만을 강조하는 다문화교육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문화적 고유성이나 이들과의 문화적 소통을 간과하는 편협한 다문화교육이 되기 쉽다. 다문화교육의 핵심은 다양성의 존재를 인정하고 다름을 존중하며 상호간의 소통의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소수자 이해증진 교육이 실시되어야하고, 다문화 가정의 학생과 일반학생이 함께 상호 소통하는 교육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학교현장에서의 다문화교육이 갖는 또 다른 특징은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더라도 다문화교육은 특정 교사에 의해 특정 교과, 예를 들면 도덕이나 사회시간에 실시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다문화교육은 그 성격상 특정한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라기보다는 관점이나 접근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다문화교육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모든 교과를 다문화교육의 관점, 원리, 방법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용환, 2008).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다문화교육을 범교과 주제중 하나로 도입한 것은 대단히 큰 발전이라 할 수 있다. 다문화교육은 수업 뿐 아니라 교실 안팎의 모든 활동에 스며들어야 한다. 학교 자체가 다문화적 상황임을 구성원 모두가 깨닫고 학교의

문화전반에 걸쳐 획일성을 줄이고 다양성을 늘려가는 조치가 다문화교육의 중요한 과정인 것이다. 벅크스는 학교에서 다문화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교육매체, 교수·학습방법, 교사 및 교육행정가의 인식, 태도, 행동, 학교의 목표, 규칙, 문화 등의 영역에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용환, 2008: 256).

여성가족부는 국제결혼 가정을 돕기 위해 전국적으로 산재한 결혼이민자 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교육 및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역시 결혼이주민을 위한 한글교육과 문화교육이다. 문화교육프로그램은 대부분 한국 음식강좌, 전통예절 교육, 지역문화재 탐방, 한지 공예와 같은 전통 문화체험 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문화교육은 이주민들을 전통한국문화에 익숙하게 하여 일상생활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주긴 하지만, 한국사회에 일방적으로 적응하기만을 요구하는 ‘동화교육’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경구, 2008). 결혼이주민들의 남편과 시부모 등 가족들과 한국사회가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도 가져야 한다. 다문화교육이 결혼이주민들에게 다양한 가치와 규범이 있는 상황 하에서 문화 간 이해를 증진하며 삶을 영위해나갈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배양할 수 있도록 할 때 그들의 자녀 역시 한국사회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태도를 그들의 부모로부터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다문화교육은 정부부처 외에도 다양한 민간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다문화교육은 지역 NGO와 종교단체에서 설립한 이주민센터에서 주로 실시하고 있다. 이주민센터에서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여 이주민 자녀들의 한국생활과 학교 적응을 돕고 있다. 안산이주민센터의 류성환(2007)은 현장에서의 다문화교육의 한계로 다른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교육시키기 보다는 문화체험 등과 같이 피상적이고 단편적인 행사로 다문화교육을 대체시키는 경향과 체계적인 교육과정에 따라 다문화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일회적 교육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그는 지금까지 현장에서의 다문화교육의 목적이 소수자의 보호에 있었는데 이제는 다수자의 변화를 위한 다문화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류성환, 2007).

새터민 자녀를 위한 교육은 여러 단체에서 설립한 대안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셋넷학교(서울), 여명학교(서울), 한꿈학교(남양주), 하늘꿈학교(천안), 한누리학교(서울), 한겨레중고등학교(안산) 등의 대안학교들은 일반학교에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새터민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 정체성 회복, 기초학력 신장, 한국사회 적응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 대안학교는 일반 학교들과는 달리 새터민 학생들의 개별적 경험을 존중하여 주체적 존재로서 학교와 사회의 적응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교육적 적응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 받는다 (권효숙, 2006). 최근에 설립된 대안학교인 아시아공동체학교(부산)나 새날학교(광주)는 다양한 배경의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소수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정체성 교육을 중시하여 다중 언어와 문화능력의 소유자로서의 가능성을 길러주는 교육을 시도하고 있다 (양영자, 2007). 이들 민간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교육활동들은 정부가 하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다문화교육의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안학교에서 실시하는 다문화교육도 교육의 내용을 구성하는 부분이나 교육방법에 있어 보다 문화적 다양성과 다원적 시민정신의 관점에 부합하기 위하여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다문화교육의 역사는 매우 짧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민간단체들은 우리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순조롭게 변화하는데 필요한 다문화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정부의 정책가들이나 실제 다문화교육을 실시하는 담당자들이 다문화교육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일방적 접근이 아닌 상호주의적 관점에서 기존의 교육프로그램들을 새롭게 조명한다면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이 당당한 우리사회의 문화적 주체로서 살아가는데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교육은 다문화가정 자녀들 뿐 아니라 우리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다문화사회에 살아가기에 합당한 태도와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이다. 조용환(2008)이 말한 것처럼 다문화교육을 “다양한 문화적 행위, 제도, 유산 등을 비판적 성찰의 소재로 삼아서 더 나은 삶, 더 나은 세계를 추구하는 일” (p.252)이라고 한다면 우리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고 조화롭게 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문화교육이 전면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4. 다문화교육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다문화교육을 다양성에 대한 인정과 이해의 태도를 배우며 관용과 정의의 삶과 사회를 형성하는 것에 관련 된 것으로 이해할 때 성경 역시 이런 의미에서의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을 지지한다. 기독교교육학자인 장신근(2007)은 다문화교육을 “다양한 문화가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가운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며 함께 살아가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사회개혁”(p.225)의 일환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적 다문화교육은 하나님나라의 비전에 기초한 정의와 평화의 사회를 이루어가는 평화교육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기독교적 다문화교육의 성경적 근거로 ‘하나님의 창조질서로서의 삶의 다양성,’ ‘나그네 환대,’ ‘복음의 보편성’ 등의 개념들을 제시한다 (장신근, 2007: 249-254).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다양하게 창조하셨고, 인간들에게 피조물들이 지닌 다양성을 조화 가운데 보존해나가도록 명하신 것은 다문화교육의 목적과 관계한다고 볼 수 있다. 창세기 1장의 창조기사는 하나님께서 생물들을 매우 다양한 종류별로 창조하시고, 창조된 세계의 풍부한 다양성에 대해 기쁨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계시록 5:9-10에 기록되어 있는 찬양 역시 하나님께서 인간의 문화적 다양성을 기뻐하심을 보여준다.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계시록 5:9-10).

기독교윤리학자인 리처드 마우(Richard Mouw) (2004)는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각문화적 집단이 신적 모자이크의 아름다움에 기여”하는 다양성이 “천상의 합창단을 감동시켜 어린양을 위한 기쁨의 찬송” (p.89)을 부르는 것이라고 했다. 이사야 11:6-9에 나타나는 살롬의 비전 역시 다문화적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리, 어린양, 표범, 송아지, 어린 사자, 암소, 곰, 사자, 젓 먹는 아이 등의 다양한 피조물들이 함께 어울려 평화롭게 지내는 종말론적 왕국은 바로 다문화공동체의 이상적 모습을 기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다양성의 인정과 그 속에서의 온전한 조화를 추구하는 다문화교육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회복해가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구약성경에서 강조하는 나그네 환대는 다문화교육 가운데 소수자 혹은 소수문화에 대한 배려와 보호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준다. 성경은 자주 이스라엘에서 문화적 타자로 살고 있는 나그네들에 대한 환대를 명하고 있다 (출 22:21; 23:9; 레 19:33-34; 신 10:19; 렘 7:6; 숙 7:10). 구약 당시 이스라엘에 거주하던 나그네들은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민족과 함께 나왔던 자들과 원래 가나안 땅에 거주하다가 이스라엘과 함께 살게 된 자들, 그리고 그 이후 타국에서 기근이나 전쟁을 피해 이스라엘로 이주한 자들이다 (김의원, 2008).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명하시면서 그 이유로 이스라엘 역시 과거 애굽에서 나그네였음을 상기시킨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음이니라”(신 10:19). 이뿐 아니라 성경은 종종 인생을 나그네 삶으로 묘사한다. 야곱은 바로 왕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 삶이었다고 소개하고 있다 (창 47:9). 모세 역시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나그네란 의미의 ‘게르솜’이라 지었다 (출 18:3). 성경 히브리사는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간 나그네요 외국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히 11:13).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점에서 모두가 나그네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나라에 타국에서 와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자들을 우리와 구별되는 타인으로 차별하는 것은 나그네로서 이 땅에 사는 성도로서의 바른 태도가 아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이방인이었던 기생 라합과 롯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조상이 된 사례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나그네 환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다문화교육을 통해 타인과 나의 지나친 구분을 경계하고 소수자에 대한 배려를 배우도록 촉구한다.

신약성경은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문화적 한계를 넘어서는 복음의 보편성을 강조한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환상에 대한 기사는 복음이란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 갇혀 있을 수 없는 보편적 속성을 지니는 것임을 나타낸다. 복

음의 보편성에 대한 강조는 어떤 문화나 인종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다문화교육의 근거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문화에 따라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정결하다고 하시고 모두에게 복음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어떤 문화 가운데 사는 사람이든 복음은 전해져야 하지만 그들의 문화적 다양성은 파괴되어서는 안 된다. 복음의 보편성은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을 더욱 분명히 한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성경은 다문화교육의 중요한 근거를 제시한다고 말했다.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인정은 다문화교육의 토대가 된다. 그런데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인정이 모든 문화를 동일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식인의 풍속이나 남자가 죽으면 그의 아내도 함께 불에 태우는 고대 인도의 관행이나 최근까지 많은 나라에서 시행되었던 노예제도 등을 문화의 이름으로 존중하자는 이는 거의 없을 것이다. 성경 역시 많은 잘못된 풍속들에 대해 경계를 표하고 있고, 특히 우상숭배와 관련된 문화에 대해서는 더욱 깊은 주의를 요청한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오늘날 어떤 문화는 인정하고 어떤 문화는 거부해야 하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현대사회에서 우상숭배와 관련된 문화를 분명하고도 구체적으로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서구적 문화에 익숙해진 사람들에게 아프리카 지역의 정령숭배와 관련된 문화는 우상숭배의 문화로 보이면서도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돈 숭배의 문화는 자연스럽게 수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선교학자 네슬리 뉴비긴(Newbigin)(2007)은 아프리카의 그리스도인들이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 일부다처제의 결혼풍속이 이혼과 재혼을 쉽게 하면서도 일부일처제를 주장하는 서구사회의 결혼풍속보다 언약적 측면에서 더 성경적 문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성경을 이해하는 우리의 사고방식이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문화와 거부해야 하는 문화를 분별한다는 것이 무척 어려운 일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네슬리 뉴비긴이 제안하는 것처럼 문화적으로 채색된 우리의 성경해석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은 다른 문화의 눈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증언에 귀를 기울이는 것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Newbigin, 2007: 362-363).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다문화교육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의 다양성과 인간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중시한다. 그러나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것이 모든 문화가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기독교적 다문화교육은 특히 소수자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그들도 복음 안에서 그들의 권리와 문화를 향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정의와 평화의 사회를 추구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는다.

5. 결론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교생활의 실태를 살펴보고 그들이 우리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아 가는데 필요한 다문화교육이 무엇인지 고찰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았다. 그리고 다문화교육을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

최근 들어 다문화가정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관심이 매우 많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다문화가정의 구성원들 특히 그들의 자녀들은 우리사회에서 복합적인 어려움 가운데 처해있는 주변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 그들이 학교와 우리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그들에게 일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사회가 다른 인종, 다른 문화의 다름에 대한 이해와 포용성을 갖춘 사회로 성숙하지 않는다면 다문화가정의 어려움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야하는 다문화교육은 이주민들의 적응을 돕는 동화교육을 넘어서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누리며 조화롭게 사는 사회를 이루기 위한 평화·정의교육임을 강조하였다.

다문화교육의 핵심인 사회적 약자 혹은 문화적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배려를 중시하는 삶의 태도는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기독교인은 누구보다 성경적 다문화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자들이다. 다문화교육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가진 기독교인들이 타인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실천해간다면 우리사회는 이주민들을 포함한 각 개인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⁶⁾ 다양한 아름다움이 넘치는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6) 김춘수의 시 “꽃”에 나오는 구절임.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2008) 2008년도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계획, 교육과학기술부.
- 권효숙 (2006) 탈북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의 적응교육: 문화기술적 사례연구, 한국교육 33(3) 89-120.
- 김미숙 (2004) 북한이탈학생의 학교적응 실태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김의원 (2008) 구속사에서 본 외국인주민, (박찬식, 정노화 편) 21C 신유목민 시대와 이주민선교, 서울: 기독교산업사회연구소 출판사, 59-96.
- 류성환 (2007) 현장에서의 다문화교육 사례, (오경석 외)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 현실과 쟁점. 서울: 한울 아카데미, 261-294.
- 서덕희 (2008) 4학년 7반 한성현을 만나다, (유네스코 국제이해교육원) 다문화사회의 이해: 다문화교육의 현실과 전망, 서울: 동녘, 11-51.
- 설동훈 (2006) “국민, 민족, 인종: 결혼이민자 자녀의 정체성,” 한국 사회학회 동북아시아위원회 용역과제 06-8.
- 양영자 (2007) 한국의 다문화교육 현황과 과제, (오경석 외)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서울: 한울 아카데미, 197-230.
- 오성배 (2006) “한국사회의 소수민족, 코시안 아동의 사례를 통한 다문화교육의 방향 탐색,” 교육사회학연구, 16(4) 137-157.
- 윤희원 외 (2006) 다문화가정 지원 우수사례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이재분 외 (2008)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실태 연구: 국제 결혼가정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 장신근 (2007) 평화교육으로서의 다문화 기독교교육: 공교회적 접근을 중심으로, (고용수 외) 평화와 기독교교육,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원, 221-269.
- 조영달 외 (2006)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정책연구과제 2006-이슈-3, 교육인적자원부.
- 조용환 (2008) 다문화교육의 의미와 과제, (유네스코 국제이해교육원) 다문화사회의 이해: 다문화교육의 현실과 전망, 서울: 동녘, 226-261.
- 조혜영 외 (2007)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생활실태와 교사·학생의 수용성 연구, 한국 여성 정책 연구원·한국 청소년 정책연구원.
- 한건수 (2008) 다문화사회란 무엇인가? (유네스코 국제이해교육원) 다문화사회의 이해: 다문화교육의 현실과 전망, 서울: 동녘, 52-85.
- 한경구 (2008) 다문화사회란 무엇인가? (유네스코 국제이해교육원) 다문화사회의 이해: 다문화교육의 현실과 전망, 서울: 동녘, 85-134.
- 한준상 (2008) 다문화교육에 대한 호모노마드식 접근, (유네스코 국제이해교육원) 다문화사회의 이해: 다문화교육의 현실과 전망, 서울: 동녘, 262-307.
- 행정안전부 (2008) 2008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결과. 행정안전부.

- Banks, J. (2008) *An Introduction to Multicultural Education, 4/E* (모경환 외 역), 다문화교육입문, 서울: 아카데미 프레스.
- Mouw, R. (2004) *Uncommon decency*. (홍병룡 역) 무례한 기독교, 서울: IVP.
- Newbigin, N. (2007) *The gospel in a pluralist society*. (홍병룡 역)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 서울: IVP.